

해남에 '첨단농업단지' 만든다

4,800억 투입 2016년까지... 27만명 고용효과 테마농장 등 조성 땅끝과 연계 농업관광지로

해남군이 첨단과학기술과 농업관광을 접목시킨 '땅끝 해남 첨단복합농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
해남군은 오는 2016년까지 703ha 면적의 영산강 III-1지구 마산 2공구에 4천800억 원을 투입, 수출형 친환경 첨단복합농업단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수출형 친환경 단지로 조성되는 땅끝 해남 첨단복합농업단지는 ▲농축단지(400ha) ▲수출지향형 시설원에 단지(210ha) ▲산지 물류 유통단지

(30ha) ▲농업관광 교육단지(30ha) 등 모두 4개 단지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각종 자동화 시설을 갖춘 첨단농업시설과 테마농장 등을 조성해 땅끝과 연계한 농업관광의 산업 활성화 기지로 구축한다.
또 물류비 절감을 위해 첨단복합농업단지 예정지에서 10km 밖에 위치한 영양호 방조제에 선착장을 만들어 선박으로 모든 농산물을 수송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첨단복합농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연 27만 명의 고용 효과와 1천600억 원 이상의 매출이 기대되고 있다.
해남군은 1단계 사업으로 오는 2009년까지 인프라 확충 및 첨단농업 개발 계획을 세우고, 2009년 사업비 1천250억 원 중 813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첨단복합농업단지의 빠른 조성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공사(농수협)를 비롯한 민간 기업체 및 영농단체 등과 연계해 세부 추진 계획을 모두 마무리 한 상태다.
해남군은 1단계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2013년까지 2단계로 첨단복합농업의 기간산업화 단지를 구축하고, 마지막 3단계 사업으로 오는 2016년까지 각종 첨단 농업 시

설비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해남군의 이 같은 계획은 이명박 정부의 5대 과제와 맞물리면서 큰 힘을 얻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 말까지 이명박 정부의 5대 과제 중 하나인 수출지향형 대규모 농어업회사를 2곳 정도 설립할 계획이며, 현재 사업 대상 간척지의 선정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김충식 해남군수는 "벼농사 위주의 농업만으로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시대"라면서 "농업과 관광, 첨단과학을 연계한 복합농업단지를 조성해 해남군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영양사랑 상품권 경제 활성화 기여

'영양 사랑 상품권'이 영양군 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을 주고 있다.
영양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관내 유관 기관단체, 기업체와 군민 등을 대상으로 영양 사랑 상품권 판매에 나서 현대삼호중공업 1억 6천여만 원의 구매를 비롯해 모두 2억 8천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 2월 판매를 시작한 영양 사랑 상품권은 현재까지 11억 5천만 원이 팔려 나가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고 있다.
5천원권과 1만원권 두 종류인 영양 사랑 상품권은 영양지역내 450개소 지정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영양=박진표기자 lucky@



강진 신평마을 주민들 담장 벽화 그리기

강진군 강진읍 신평마을 주민들이 '실기좋은 마을 만들기 운동'의 일환으로 골목길 담 벽에 여러가지 형태의 그림을 직접 그려넣고 있다. (강진군 제공)

화순에 초현대식 노인복지센터 건립

화순리에 29억 들어
건강증진실 등 갖춰
화순에 초현대식 노인복지센터가 문을 연다.
화순군은 29억원을 들여 화순읍 강정리 일대에 부지 6천912㎡, 연 건물 면적 2천86㎡, 2층으로 된 노인복지센터를 오는 10월 착공해 내년 3월에 문을 열 계획이다.
센터 1층에는 헬스장과 요가, 에어로빅 등을 할 수 있는 건강증진실, 한방

및 물리치료실과 식당이 각각 자리 잡고 2층에는 장기, 바둑, 서예, 노래, 국악 등 취미교실이 들어선다.
또 센터 건물 옆에는 게이트볼장도 마련, 야외 운동도 즐길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건물 외관과 창문에 자연채광을 유도하면서 나비를 형상화한 설계로, 건물 자체도 좋은 볼거리가 될 전망이다.
화순군은 이용자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지역을 순회하는 2대의 무료 셔틀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광산구서 30일 '장애인 은륜 축제'

광산구가 오는 30일 시작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자전거를 타고 광산구를 일주하는 '장애인 은륜축제'를 개최한다.
시각장애인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제정된 '흰 지팡이의 날'을 앞두고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 30쌍이 2인용 자전거를 타고 광산구를 한 바퀴 돌게 된다.
비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이 앞뒤에 탄 자전거는 송정역 광장에서 기념식을 갖고 출발해 송정공

원, 평동산단 등을 지나 다시 송정역으로 돌아오는 약 11km 구간을 일주할 예정이다.
구는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헬멧 등 보호 장비를 지급할 계획이며 경찰의 협조를 얻어 자전거가 지나가는 도로의 일부 차선을 통제하기로 했다.
참가 희망자는 24일까지 광산구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940-9855)
/광산=기원태기자 wrtkee@

영광 불갑산 붉은 상사화 물결

19~21일 상사화축제

'제 8회 영광 불갑산 상사화 축제'가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불갑사지구 관광단지에서 펼쳐진다.
이번 축제는 불갑산 연실봉 정상까지 오르는 꽃길 등반대회를 비롯해 푸른 음악회, 관광객 노래자랑, 각종 전시회, 부대 체험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꾸며진다.
또 소원성취 풍등 띄우기와 짚공예 체험 등 가족단위 체험 행사

도 마련된다.
영광군은 그동안 불갑 상사화 축제를 전국 단위의 행사로 육성하기 위해 국내 최대의 상사화 자생지인 불갑산과 행사장 인근 불갑사 지구 관광단지를 중심으로 재배면적을 꾸준히 늘려 왔다.
올해 행사기간 동안 개화되는 상사화 면적은 100만㎡에 달한다.
이 밖에 불갑사 주변에는 백제 불교 최초도래지, 원불교 영산성지, 백수 해안도로의 노을 전망

등 볼거리와 영광 모깃잎송편과 굴비 등 다양한 먹을거리가 산재해 있다.
정노성 불갑면장은 "올해는 개막일에 맞추어 꽃이 만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의(061-350-5222, 4887)
/영광=조익상기자 ischo@



불갑산 관광단지에 '상사화 숲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민간 신앙 중의 하나인 솟대를 상사화 꽃과 접목시킨 이색적인 '상사화 숲대(사진)'가 불갑산 관광단지내 상사화 군락지에 세워져 관광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조형물을 제작한 영광민예총 장진기 지부장은 "에뿃한 사람의 전

설인 상사화 꽃을 물고 있는 솟대를 형상화 한 것"이라고 밝혔다.
영광군에서는 관광객들에게 따뜻하고 정겨운 지역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상사화축제 기간 동안 불갑사지구 수변공원과 영광읍 입구 등에 '상사화 숲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녹비작물 재배 땅심 높이고 경관 조성

전남도, 87억 들여 7만ha에 자운영 등 파종

전남도가 겨울철 노는 땅을 활용해 땅심도 높이고 아름다운 경관도 조성하는 등 1석2조의 효과가 있는 녹비작물 재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도는 올해 국비 등 8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7만1천718ha에 녹비종자를 파종할 계획이다.
작목별로는 자운영이 4만5천734ha로 가장 많고, 헤어리베틀 1만8천64ha, 호밀·클로버 7천920ha 등이 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녹비작물 재배

에 소요되는 자운영·헤어리베틀·클로버 등의 종자 2천640t을 농협중앙회를 통해 읍·면 농협에 공급했으며, 호밀종자 528t은 9월 하순 농가에 공급할 예정이다.
녹비작물 파종은 자운영이 9월 중에 ha당 40kg, 헤어리베틀은 10월 중에 ha당 40kg, 호밀은 11월 상순까지 ha당 150kg을 파종하고 면적이 가장 많은 자운영은 벼 수확 10일전에 파종하거나 벼 수확 후 본답에 파종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공과 녹비작물은 질소함량이 높아 별도로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토양의 비옥도 증진, 토양 유실 방지, 잡초 방제, 조사료 활용 등 다양한 효과를 갖고 있다.
또한 겨울철 농촌 들뜰을 푸르게 하고 봄에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 양봉의 밀원으로 제공되는 물론 전남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도 볼거리를 제공해준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해남 대흥사 입구에 150실 규모 호텔

전남도, 성호건설과 협약 체결

해남 대흥사 입구에 150실 규모의 호텔이 들어선다.
전남도는 18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성호건설과 150실 규모의 호텔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협약에 따라 성호건설은 해남 대흥사 입구 인근에 350억원을 투자해 지하 1층, 지상 4층, 150실

규모의 호텔을 2010년 이전까지 건립한다.
성호건설은 현재 호텔 기본설계를 마친 상태로 앞으로 두륜산 도립공원 조성 계획 변경과 건축허가 절차를 이행한 후 내년 3~4월께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투자협약으로 100여명의 고용 창출과 개장을 앞두고 있는 화원골프장, 해남 대흥사, 공평화서지, 운

산도 유적지, 서남부권 해수욕장 등을 연결하는 체류형 관광 인프라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호텔이 건립되면 2010년 F1국제자동차 경주대회 관람객을 위한 숙소로도 이용할 수 있는 등 서남해안관광레저도시 개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Movie Gift, 광고접수안내, and a large table of classified advertisements including real estate, services, and notices.